

‘ISA 깡통계좌’ 증가 놓고 논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체의 71%가 1만원 이하
금융노조 “실적경쟁 부추겨
불완전 판매 부메랑”

당국 “성과연봉제 도입
막기 위해 ISA 성과 축소”

1만원 이하 소액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일명 ‘깡통계좌’ 증가를
놓고 금융당국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실적경쟁을 부추긴 결과
금융권이 불완전판매의 부메랑을 맞
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금융
당국은 과대해석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은행권과
증권사에서 개설된 ISA 계좌는 150만
5657개로 총 가입금액은 1조189억2730
만원, 계좌당 평균 가입금액은 67만
6733원이다.

ISA계좌별 가입금액 분포를 보면 전
체의 70.78%(106만15732개)가 가입금
액 1만원 이하의 계좌인 것으로 집계
됐다.

1000원~1만원 이하 계좌는 91만
2000개(60.6%), 100원~1000원 이하
계좌는 11만5000개(7.6%), 100원 이하
계좌는 3만8000개(2.5%)다.

금융노조는 150만개가 넘는 ISA의
70%가 깡통계좌로 채워진 것은 성과
지상주의를 좇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전차량 전달식 채규병(왼쪽) 쌍용자동차 서울강남지역본부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쌍용자동차 대치전시장에서 음악가 폴 포츠에게 체어맨 W 카이저를 전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폴 포츠의 방한 기간 동안 편안한 이동을 위해 체어맨 W 카이저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업계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이와 유사한 불완전 판매가 성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재난 늘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추진한 ISA가 불완전판매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며 “이들 당국이 정책을 과대포장하고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배정해 실적경쟁을 부추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은행 사측이 ISA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ISA

과당경쟁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개인별 목표부여 금지, 핵심 성과 지표(KPI) 반영 및 별도 캠페인 금지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ISA의 성과를 축소·비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5년으로 길기 때문에 1만원 짜리 소액 계좌를 개설한 뒤 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보다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도 출시 다음해인

2000년도에 계좌수는 21% 상승한 반면
납입 규모는 무려 253%나 올랐다”
며 “ISA 출시 후 불과 세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노조가 장기상품의
성배를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변수는 또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ISA 수익률 비교 공식, 계좌이동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ISA 출시 후 마땅한 비교·분석 자료가
없어 상품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고객들에게 이같은 시스템 발전이
가입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진수 기자

금융주 리스크는 ‘기업 부실위험’

저성장·저물가 고착화도 ‘급부상’

국내의 금융전문가들이 주목한 한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기업 부실위험 증가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가 새롭게 지목됐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여전히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혔지만 경제감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은행의 2016년 상반기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금융기관 전문가 78명이 꼽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로는 ‘중국 경기 둔화(73%)’, ‘기업 부실위험 증가(59%)’, ‘가계부채 문제(54%)’,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51%)’ 순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업 부실위험 증가(32%→59%)와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47%→61%)는 지난해 하반기(2015년 10월) 이뤄진 조사에서는 응답비율이 낮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50%를 넘어서면서 주요 리스크로 편입됐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만큼 이에 따른 우려감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기둔화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긴 했지만 응답비율이 기존 90%에서 73%로 하락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62%에서 54%로 소폭 줄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1~3년 내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증가기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40%로 이전 조사(37%)때보다 3%p 상승했다. 다만 1년 이내의 단기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완화됐다. 단기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이전 44%에서 49%로 올라 ‘높다(15%)’는 비중을 크게 상회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6~20일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전략·리스크, 금융시장 전문가 68명과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담당자 10명 등 모두 78명(복수응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진수 기자

더민주 성과연봉제 조사단 오늘 산업은행 방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산업은행을 직접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민주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40분 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진상조사단장인 한정은 “조선·해운업의 바닷길 구조 개편을 위해 온 기관이 집중해야 할 산업은행이 노조와 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개별 직원 면담을 통해 동의를 장구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 유린까지 자행했다면 국책은행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노사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전액 지급해야”

금감원 “대법 판결은 약관 지키라는 것”... 지급 거부·지연 회사는 엄정 조치

금융당국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약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월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보험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 부원장보는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루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론건”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적으로 소멸시효를 다루는 것과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태도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권 부원장보는 “소비자 믿음에 반해(소멸시효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

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보험회사 윤리경영과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책임은 지고 있는 금감원 입장에서 이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살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 계약들은 2010년 1월 29일 이전 계약들이다. /안진수 기자

삼성·LG ‘프리미엄 급’ 중저가폰으로 中에 맞대응

삼성, LG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맞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IT 리서치 기관 가트너는 2016년 1분기에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화웨이(Huawei), 오포(Oppo) 및 샤오미(Xiaomi) 등 중국 업체들이 5대 스마트폰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3개 중국 기업들은 시장의 17%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삼성이 23.2%로 1위를 유지했으나 LG는 5위 안에 입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트너는 중국 업체들이 상승하고 있는 저가형 4G 스마트폰 등 경쟁력 있는 프로모션에 집중하는 것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업체들의 높은 공세에 맞대응해 삼성, LG는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항마는 갤럭시 J 시리즈다. IT 매체 샘모바일은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 J5와 갤럭시 J7의 2016년형 모델을 인도에 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수 기자

갤럭시 J5의 사양은 올해 출시된 프리미엄폰 갤럭시 S7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급형 라인의 평균적 기술력은 프리미엄보다 평균 1년 정도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3월 X 시리즈를 출시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X 시리즈의 경우 출시할 때부터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보급형 라인’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간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탑재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2년 정도 낮은 기술로 중국 스마트폰과 승부한다. /안진수 기자

BC카드 ‘얼리버드 이벤트’

BC카드는 미리 여름 휴가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한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30일까지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3대 호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BC카드를 결제하면 최대 100%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는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청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